



♡ 유임정 10기 - 합.격.수.기. ♡

수강생명	김○○ 수강생		수강방식	연간 패키지 ALL 인강	
응시지역	인천		병행 여부	일병행 (공립 기간제)	
공부경력	삼수		등수	인천 3등	
점수	1차	교육과정: 64 논술: 18	2차	수업실연: 39.20	면접: 46.33

좌우명	믿으면 해내지 못할 일이 없고, 믿지 못하면 해낼 수 있는 일은 없다.
-----	---

1. 1~10월 1차 시험 공부 계획 및 방법 (유임정 강의 활용 방법)

◆◆◆ 1월 Start~~!! ◆◆◆ 스터디 구성하기+ 고시문 암기하기

- 순 공부 시간: 3시간~4시간 (유치원 담임교사 병행)
- 유아임용을 '1년짜리 초대형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1년을 함께 달려 줄 **책임감 있는 동료들을 구성**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 또한 2월까지의 사립유치원에서 일을 병행중이었기 때문에, 스터디를 하지 않으면 제가 공부를 시작하지 않을 것 같아서,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기 위해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 유아임용고시 단톡방을 통해 스터디원 4명(본인 포함)을 모집하고, LINE 앱을 활용해서 **기상·논술·구술·문풀·모고 스터디를 같은 선생님들과 진행**했어요.
- 우선은 기상 스터디로 시작했고,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을 가진 후에 서서히 다른 스터디들도 추가해갔습니다.
- 매번 스타일이 다른 선생님들과 합을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합이 맞추어진 선생님들과 여러 스터디를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것에서 오는 안정감이 굉장한 힘이 되더라고요!
- 기상 스터디는 평일 오전 7시~7시30분까지 매 30분씩 진행되었고, 이 시간에는 잠을 깨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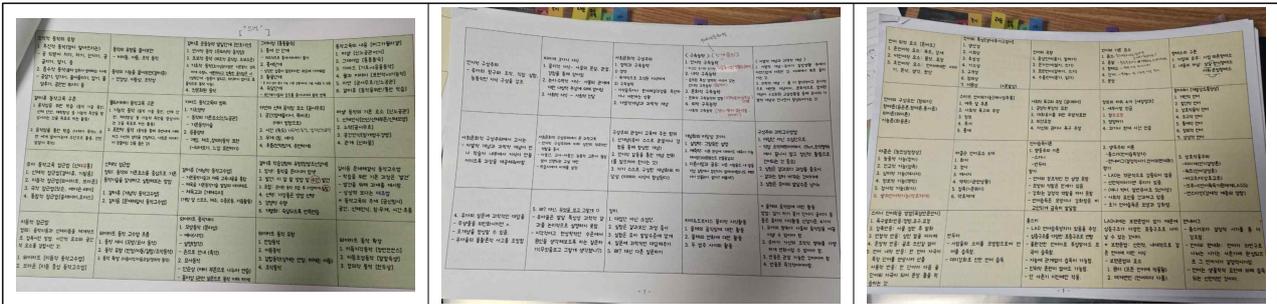
◆◆◆ 1~6월 ◆◆◆ 개각론 강의+기출 * 논술(2월부터~)

- 순 공부 시간: 3시간~4시간 (유치원 담임교사 병행)
- 기본적으로는 배운 내용을 암기하고, 기출을 풀며 이론별 중요도를 익혔습니다.
- 저는 오답노트를 할 때 틀린 문제는 우선 모범답안을 참고한 다음, 내가 왜 이 문제를 틀렸는지를 다음의 기준으로 분석했습니다.
 - * 문제 해석을 잘못했나?
 - * 지문에서 놓친 부분이 있었나?
 - * 방향은 맞았는데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더 명확하게 정답일까?
 - * 나는 지문을 A라고 이해했는데 모범답안은 B네, 왜지?
- 이런 기준에 따라서 틀린 이유를 분석하고 나면, 다시 저만의 언어로 정답을 구술해보고, 이를 글로 다시 적으면서 문장을 다듬어갔습니다.
- 이런 과정이 글로 적혀서 장황해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할 때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또한 초반에는 더딜지 몰라도 익숙해지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분석하고, 구술한 답을 다시 글자로 다듬어가며 적는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문장 구성역량이 길러져서 서술식으로 써야하는 임고생에겐 정말 도움이 되는 방법이에요!ㅎㅎ
- 기출 문제들은 1년 동안 자주 인출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저는 추후에 문풀반이든 모고반이든 특정 문제를 틀렸는데 그 문제가 기출에 나왔던 내용이라면 기출 문제집을 다시 열어보고 두 문제를 비교하면서 분석하는 방식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비슷한 문제를 만났을 때 출제자의 의도를 좀 더 분명히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 저는 삼수생이다보니 논술은 2월부터 그냥 가지고 있는 문제들로 일주일에 1편씩 작성했습니다. 같이 스터디하는 선생님들과 타이핑하거나 수기로 작성해서 서로 피드백 해주면서 감을 잃지 않으려고만 했어요.
- 논술을 본격적으로 한 건 박수민 강사님 논술 기초반이 시작했을 때 었어요!

◆◆◆ 7~8월 영역별 문풀반 ◆◆◆

- 순 공부 시간: 평일 2~3시간, 주말 10시간 (6월부터는 공립유치원 기간제 정교사 병행)
- 저는 올해 공립 유치원에서 기간제 정교사를 병행하며 공부 했는데, 특히 이 시기에 공부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만약 제가 일병행을 하며 공부할 예정인데 작년 1월로 돌아간다면 직강을 수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장을 병행하다보면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서 인강을 진도에 맞춰서 듣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 저는 지난 2년동안 올인으로 공부했었는데, 제가 세운 공부계획을 지키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

- 저는 시험 3일 전 마지막 모고까지도 점수가 좋지 않았지만 신경쓰지 않고 "시험 전에 알았다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 꼭 나왔음 좋겠다!"라며 채워 넣었습니다.
- 그리고 이 시기에는 키워드 위주로 적힌 단권화 노트로만 회독하며 가성비 좋은 수험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직접 만든 **단권화 노트를 보고 적힌 키워드를 설명하듯** 하면 한 과목당 1시간~1시간 반정도가 걸리는데, 이렇게 해서 **하루에 2과목씩을 회독**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일병행 수험생**이 될 수 있었고 너무 도움이 됐어요!



2. 2차 준비 방법

◆◆◆ 면접 준비 ◆◆◆

- 저는 2차를 준비할 때에도 즉답형 문항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말을 더듬지 않은 날이 거의 없었고, 두괄식이 안 되어서 스테디 할 때마다 문장이 길어져 핵심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하하.
- 논술은 눈에 보여지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두괄식으로 쓰지 않아도 나름 정리된 글을 작성할 수 있고, 보는 사람도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해석할 수 있는데, **면접은 두괄식으로 하지 않으면 말이 계속 덧붙기 때문에 면접관이 핵심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두괄식으로 말하는 연습을 정말 수시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만 일상생활에서도 기계처럼 '그것은 A입니다. 왜냐하면 B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C 해야 합니다.' 이렇게 두괄식으로 끊어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단시간에 습관을 형성하는게 굉장히 어렵더라구요TT 논술부터 두괄식으로 연습하시길 추천드립니다 :D**
- 면접을 보는 날 관리번호 7번을 뽑았습니다. 7고사실에는 17명의 선생님들이 계셨고, 그 중 나름 앞번호라 좋았어요. 이 날도 구상형은 무난하게 답변을 잘 하였는데, 즉답형 문항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 면접은 -3.77점이 감점되었는데, 구상형은 안정감 있게 구조화시켜서 잘 답변하였다고 생각되었으나, 즉답형 문항에서 근거를 좀 더 명확하게 밝혀서 답하지 못한 점이 감점의 요인이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즉답형 2번 문항에서 최 교사가 사과를 받고 싶다고 하였음에도 해당 부분을 언급하지 못한 점도 감점의 요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저는 사실, 면접 준비를 1차 시험이 발표난 이후에 시작했기 때문에 평가원 기출만 여러번 회독하고, 다른 지역의 기출 문제는 인성적 자질과 역량, 유아문제행동 지도방안에 대한 문제 등 평가원에서 자주 출제되는 영역들만 급하게 한 번씩 풀어보는 정도였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선생님들께서는 **1차 시험이 끝난 이후 꼭 면접준비를 다부지게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차 시험 끝난 후부터 해야 늦지 않는다고, 발표 이후에 하면 너무 준비할 것이 많다고 말씀하신 박수민 강사님과 선배선생님들의 이야기가 뼈저리게 와닿고 후회되는 부분이었습니다.**

2차 <면접> 문제 복기 (2026 평가원)

<구상형 문항>

- *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교사의 지도상의 문제점 3가지와 해결방안을 말하십시오.

세계 여러나라를 주제로 한 놀이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유아들은 탐쌍기 놀이를 하거나 세계 구조물을 건축하는 놀이를 하고 있다. 평소 친구들과 어울리기 힘들어 하는 건우가 지윤이와 가까운 거리에서 탐쌍기를 하다가 실수로 지윤이의 놀잇감을 망가뜨린다. 건우는 “일부러 그런게 아니야. 미안해” 라고 사과하지만 지윤이가 “너 때문에 망가진거야! 선생님한테 다 이룰거야!”라고 말한다. 다른 유아들을 지원하느라 건우와 지윤이의 놀이상황을 관찰하지 못한 교사는 건우에게 다가와 왜 그랬냐고 이유를 물었지만, 건우는 선생님께 혼이 날까봐 “제가 그런거 아니예요.” 라고 거짓말을 한다. 교사는 유아가 자주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유아의 손을 잡고 다른 영역으로 데리고 간다. “건우는 저쪽에서 선생님이랑 조금 쉬다가 다시 탐쌍기 놀이를 하자”

<즉답형 문항 1>

- * 신규교사인 박교사는 유초이음교육을 위해 학급 유아들에게 ‘초등학생이 되어 보아요’ 놀이를 계획하고 제공하였다. 하지만 유아들은 이에 흥미를 가지지 않고, 심지어 “이거 또 해야해요?”와 같이 말하기도 하였다. 박 교사가 학급 유아들에게 유초이음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지녀야 할 태도 2가지와 이유를 말하십시오.

<즉답형 문항 2>

- * 이 교사는 학급 유아들과 ‘곤충’ 프로젝트를 해서 복도에 1주일 째 유아들의 작품을 전시 중이다. 마땅히 전시할 다른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같은 층을 사용하는 최 교사는 언제까지 복도에 작품을 전시할 생각이냐며 불편하다고 하였다. 이 교사는 미안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유아들을 위한 것이니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이해해주지 않는 최 교사에게 언성을 높이기도 하였다. 최 교사는 사과를 받고 싶다고 하였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이 교사가 지녀야 할 인성적 자질 2가지와 이유를 말하십시오.

◆◆◆ 수업 실연 준비 ◆◆◆

- 1차 합격발표 이후 **짜 스튜디오 수업실연을 준비**했습니다. 짜 스튜디오 해도 3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원이 많으면 제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가상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 낯간지럽고, 이상하게만 느껴지고, 수업 전개의 순서 역시 유형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막막하게 느껴져서 만능틀을 읽어도 “수업이 매번 다른데 이걸 어떻게 외워서 적용하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시나리오만 계속 반복적으로 읽었습니다.**
- 유형마다 시나리오를 쭉 읽고 나서 “아 다른 선생님들은 이 수업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감을 익혔습니다.**
- 가상으로 수업하는 것이 조금 낯설고 어색할 수는 있지만, 시나리오를 몇 번 접하고, 다른 선생님들이 하시는 수업실연 영상을 여러 편 보고나니 **어떤 태도와 가짐으로 임해야하는지 금방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내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라고 생각하고, 이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수업실연의 핵심 포인트**더라구요!! 그냥 AI 질문형 로봇처럼 질문을 하고, 아이들의 생각을 말로 따라 읊어주는 시연이 아니라! 정말 아이가 그렇게 말을 했다면 **내가 어떤 상호작용을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수업실연의 핵심**이었습니다. 따뜻함과 적극적인 상호작용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 선생님들은 무조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저는 수업 구성 방향이 체계적이지 못했고, 구상지에 잘 적어놓은 부분조차도 헛갈려 하거나 누락시킨 부분이 많아 스스로도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럼에도 **따뜻한 말투와 적극적인 상호작용 모습을 보고 높은 점수를 주신 것 같았어요 :D**
- 수업실연은 관리번호 1번을 뽑았습니다. 이번에 새노래나 동시가 나올 것 같다고 예측했어서 동시 만능틀을 여러 번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동시 짓기가** 나와서 당황했습니다 하하. 동시 짓기는 연습을 한 번도 못했던 것이지만, 개작하는 것과 결을 같이해보자고 생각하고 구상을 시작했습니다. 1번을 뽑아서 너무 긴장 되더라구요.

- 구상지에 나름 절차를 잘 구상하고 적어서 들어갔는데 1번이라는 생각에 너무 떨리는거예요!!
ㅎㅎ 주의집중에서 노래를 부르는 순간부터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수업은 -0.8점으로 고득점에 성공했습니다!
- 동기유발에서 산책 사진을 보며, 겨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동시짓기 활동에 대한 소개와 약속을 나눈 후에, 원래계획은 유아들과 어떤 시구들을 만들 수 있을지 같이 마인드맵 식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칠판에 글자를 적어주려고 했는데, 활동 소개를 하면서 실수로 "그럼 자기 자리로 이동해서 동시짓기를 시작해볼까요?"와 같이 **엉뚱한 진행을 해버렸어요**. 긴장감과 구상지를 내면화 하지 못함의 대환장 콜라보레이션이었습니다ㅜㅜ 그래서 이걸 어찌지? 라는 생각으로 한 5초간 잠시 정적이 흘렀는데, **당황하지 않은 척** "00이는 어떤 내용을 써야할지 모르겠어요? 동그라미 회의소로 모여서 친구들과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어요? 좋아요. 그럼 다시 모여 동그라미 회의소를 열어볼까요?" 하며 자리로 보낸 유아들을 다시 대집단형식으로 모이게 하는 수업방식이 연출되었습니다..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네요ㅜㅜ
- 이걸 제 생각이지만 '만5세, 8명, 겨울' 이라는 키워드가 이번 평가원 기출의 핵심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만 5세 겨울이면 졸업 직전이므로 유아들이 글자를 쓰는 데 거부감을 느끼기 보다는 호기심과 적극성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8명의 유아인데 감상하기 활동이 있어야 한다면 대집단 활동 후 감상보다는 개별활동 또는 짝활동을 진행한 후 친구들의 동시를 감상하는 것을 더 적합하게 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집단 활동은 개작 활동이랑 결이 비슷하게 이어질 수 있으니 일부러 다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 나머지 부분들은 **주어진 조건을 충실하게 채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감상하는 부분에서 의성어와 의태어를 충분히 즐기도록 깊은 상호작용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구상지에 여러 가지 의성어, 의태어를 적어 두고 기억이 나지 않아서 1개 밖에 다루지 못했습니다. **2차 시험이라는 것이 주는 중압감에 너무 긴장했던 것이 다소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 빈틈이 많이 보였던 제 수업에서 스스로 잘했던 점을 꼽으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밝게 웃으면서, 안 되더라도 미소를 잃지 않고 상냥하고 따뜻하게 수업을 진행**했던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민 강사님께서 2차 개별 지도를 해주실 때에도 '수업에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따뜻하게 수업을 진행해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 해 주셨었는데, **밝은 미소와 따뜻함은 유아교사에게 강력한 무기**가 되어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2차 <수업실연> 문제 복기 (2026 평가원)

- 겨울 동시 짓기
- 연령: 만5세(8명)
- 소요시간: 20분
- 유아들이 실제 있다고 가상하고 상호작용하며 실연하시오.
- 도입, 전개, 마무리(일부)를 15분동안 시연하시오.
- <도입>에서는 자리배치, 약속 나누기, 활동에 대한 안내를 반영하시오.
- <전개>에서는
 - 유아들의 동시 짓기를 돕는 지원을 하시오.
 - 시적표현 (운율, 리듬, 반복 등)을 촉진하는 발문을 하시오.
 - 동시 감상을 촉진하는 활동을 지원하시오.
 - 글자를 못 쓰는 유아가 있다고 가정하고 시연하시오.
- <마무리>에서는 활동평가, 후속활동에 대한 내용을 담으시오.

- 활동 내용
 - 의사소통: 듣기와 말하기- 자신의 경험, 느낌, 생각을 말한다.
 - 의사소통: 책과 이야기 즐기기- 말놀이와 말짓기를 즐긴다.
 - 자연탐구: 자연과 더불어 살기-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생활과 관련 짓는다.

- 유아들은 겨울 산책을 하며 본 풍경들과 겨울의 특징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눈사람을 만드는 사람, 추운 날씨, 하얀 입김 등 자신들이 산책하며 본 풍경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또한 얼마 전 활동했던 동시 내용을 떠올리며 동시를 직접 창작해보고 싶어하였다.

3. 수면 및 건강 관리

★ 수면시간: **평균 6시간 30분 -> 8월 이후 5시간 30분 -> 10월 이후 7시간**

- 우선 저는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꼭 건강을 먼저 챙기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을 병행하다보니 공부시간이 부족해서 **잠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미련한 생각**을 했어요ㅠㅠ 덕분에 잇을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 지난 10월 추석연휴가 유독 길었습니다. 열흘이나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간이 밀린 진도를 따라잡을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16시간씩 공부하고 4시간 정도만 자면서 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흘을 보낸 다음 날부터, 갑자기 한쪽 얼굴근육이 서서히 움직이지 않더니 안면마비라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ㅈㅈ 너무 두려웠고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이번에도

불합격인건가 라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병원에서는 수면부족과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며 7시간 이상의 수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하.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게 공립 기간제 교사로 일을 병행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었는데, 몸은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다행히 3주 만에 쾌차하여 지금은 다 나아졌습니다! ㅎㅎ

- 이 때부터는 **무조건 7시간 이상씩 잤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면시간을 7시간 이상 확보하는 것이 능률을 높이고 수험생에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 집중력도 달라지고, 얼마 없는 공부시간에 정해진 범위를 다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엄청난 집중력으로 다 끝내게 되더라고요.
- 그리고 **1월부터 공부를 좀 더 꾸준히 한다면** 8월 이후 부담감을 크게 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상반기에는 마음을 조금 가볍게 하다가 8월 이후부터 진중하게 몰입했던 터라 건강이 상했던 점이 많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ㅎㅎ
- 운동은 원래 러닝하는 것을 좋아해서 **주3~4회정도 3키로 정도 가볍게 러닝**을 했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와 목이 아프신 분들은 러닝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볍게 뛰어주면 목 디스크와 허리통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 한번 시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4. 스트레스 극복 방법

★ 명언을 마음에 되새기기

- 박수민 강사님의 프린트물 자료를 보면 마지막장에는 거의 대부분 짤막한 글귀들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걸 늘 읽고 마음을 다잡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정말 마음에 와닿고 동기부여가 되는 글이 있으면 스크랩해서 책상에 끼워놨습니다.

★ 운동할 때 & 쉴 때는 유튜브에서 공부 동기부여 영상 찾아보기

- 유튜브에 <열정제작소>를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 영상이 있습니다. 저는 운동할 때나 잠이 올 때 이걸 들으면서 마음에 뜨거운 동기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마 아무거나 한 개 들어보시면 바로 공부하고 싶어지실 거예요 ㅎㅎ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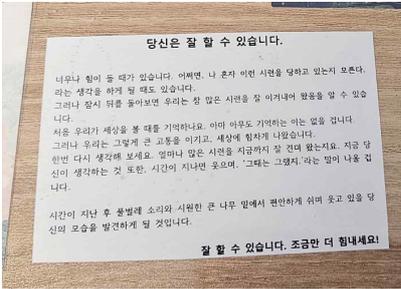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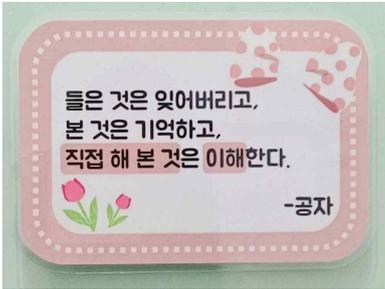
★ 내가 나 자신을 믿어주기

-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면서 공부하는 건 이상한 일입니다.** 내가 나를 못 믿어주는데 어떻게 합격을 해요. 다른 사람이 다 못 믿어도 나만큼은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거야.' 라고 계속 마음에 되새겼습니다. 저도 누구보다 저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열정제작소> 영상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 내가 나를 믿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고,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 안면마비로 인해 안구건조증이 심해서, 모의고사를 보려고 앉았는데 눈앞이 뿌옇게 보여서 도저히 문제를 풀 수 없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계속 눈물만 나더라구요. 10분 정도 울다가 계속 마음속으로 '괜찮아 지혜야. 넌 할 수 있어. 내가 괜찮으면 다 괜찮아. 할 수 있어. 내가 날 못 믿으면 어떻게 합격해. 난 할 수 있어. 무서워하지 말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해보자.' 하고 되뇌며 끊임없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놀랍게도 금세 마음이 차분해지고 나 자신을 믿어주자는 긍정적인 마음이 저를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일으켜 주더라구요. 이 일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선생님, 선생님은 어떤 상황이 와도 해낼 수 있어요.

그렇게 자신을 믿어주세요!

 <p>당신은 잘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나 혼자 이런 시련을 당하고 있는지 모른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를 돌아보면 우리는 참 많은 시련을 잘 이겨내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세상을 볼 때를 기억하나요. 이미 아무도 기억하는 이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큰 고통을 이기고, 세상에 활짝게 나왔습니다.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련을 지금까지 잘 견뎌 왔는지요. 지금 당 신이 생각하는 것 또한, 시간이 지나면 웃으며, '그때는 그랬지' 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시간이 지난 후 울벌레 소리와 시원한 큰 나무 밑에서 편안하게 쉬며 웃고 있을 당 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잘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p>	 <p>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고, 직접 해 본 것은 이해한다. -공자</p>	<p>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졌어..</p> <hr/> <p>그렇다면 이긴것도 나 ㅎㅎ</p>
<p>박수민 강사님 프린트물 글귀 스크랩</p>	<p>유치원 화장실에 붙은 명언들</p>	<p>SNS에서 본 인상깊고 유쾌한 명언들</p>

5. 수기를 마치며..

- 저는 유치원 시절부터 유치원교사를 꿈꾸던 교사였는데, 사립유치원에서 3년 동안 근무하면서 '교사의 자율성'이 중요하다는 사실 조차 잊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누군가 하라는 대로 앵무새처럼 아이들에게 주입하고 있는 그저 그런 교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제가 가진 은사인데, 이것을 더 유능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임용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특별히 올해 공립 유치원 기간제 교사로 시간을 보내면서 경험했던 공립 유치원은, 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는데요. 이곳은 서로의 '자율성' 그리고 '전문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존중하는 곳이더라구요. 그제서야 '아 내가 강력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율성을 가진 교사였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직생활에서 새로운 교직관을 정립하게 된 참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눈으로 매일 직접 보고 경험한 공립 유아교육 현장은, '살면서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무언가

를 바라 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하루빨리 현장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들게 했습니다. 공립 현장은, 교사가 전문성을 기르겠다고 의지만 가지면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기를 아끼지 않는 곳입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큰 동기가 되었어요. 직접 해본 사람은 진짜를 이해하게 된다는 말이 깨달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저는 아직도 여전히 제 자신을 의심하고 염려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시험을 통해 '그럼에도 나를 믿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단 것을 알게 되었기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혹시 임용 공부를 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크리스천이신 선생님이 계시다면, 선생님들의 시간의 주인이 그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멋지고 근사한 선물을 받게 될 거예요!

모든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응원을 보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끝으로..

삼수생 시절 중 2년을 함께 해주신 박수민 강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강사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도, 마침내 합격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강사님의 인품을 그대로 닮은,
따뜻하며 다부지고 강단 있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